

인천의 역사문화도시로서 이미지 부합도

인천은 '역사문화도시'로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했다. 조사 대상은 인천광역시 거주자 1,007명이다.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천의 역사문화도시로서 이미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했다. "인천의 역사문화도시로서 이미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은 20.3%(매우 그렇다 2.5%, 그렇다 17.8%)가 그렇다, 보통이다 52.7%(매우 그렇다 5.0%, 그렇다 22.1%)가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48.3%가 '매우 그렇다'에 해당한다.

인천의 역사문화도시로서 이미지 부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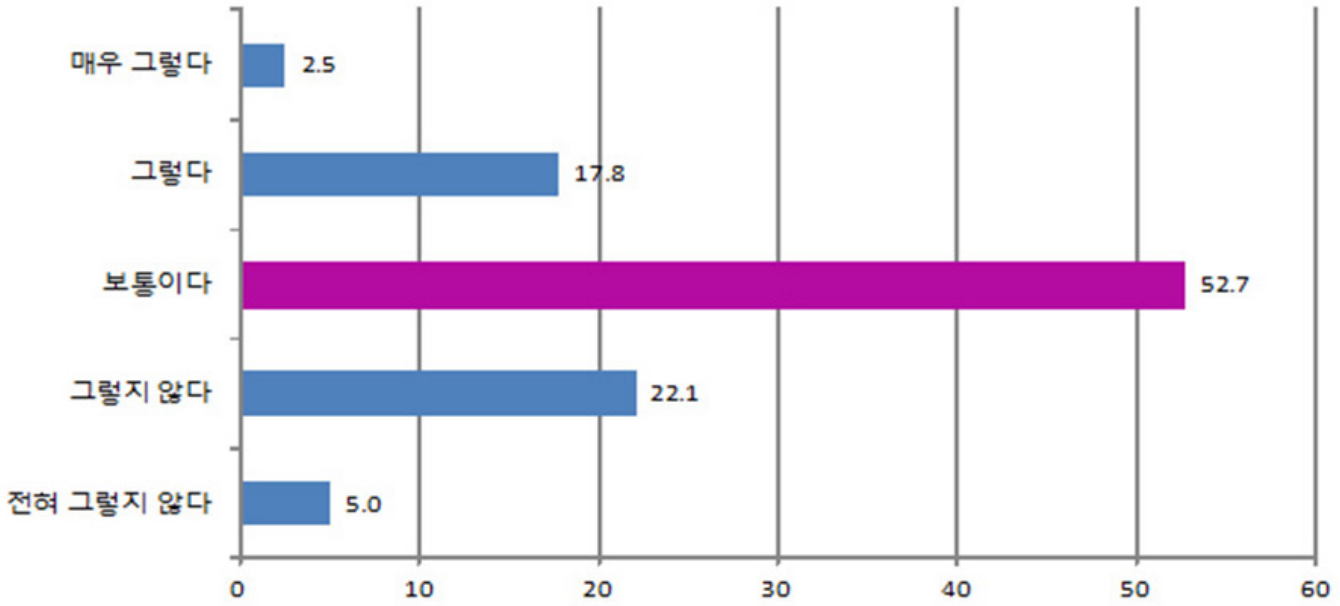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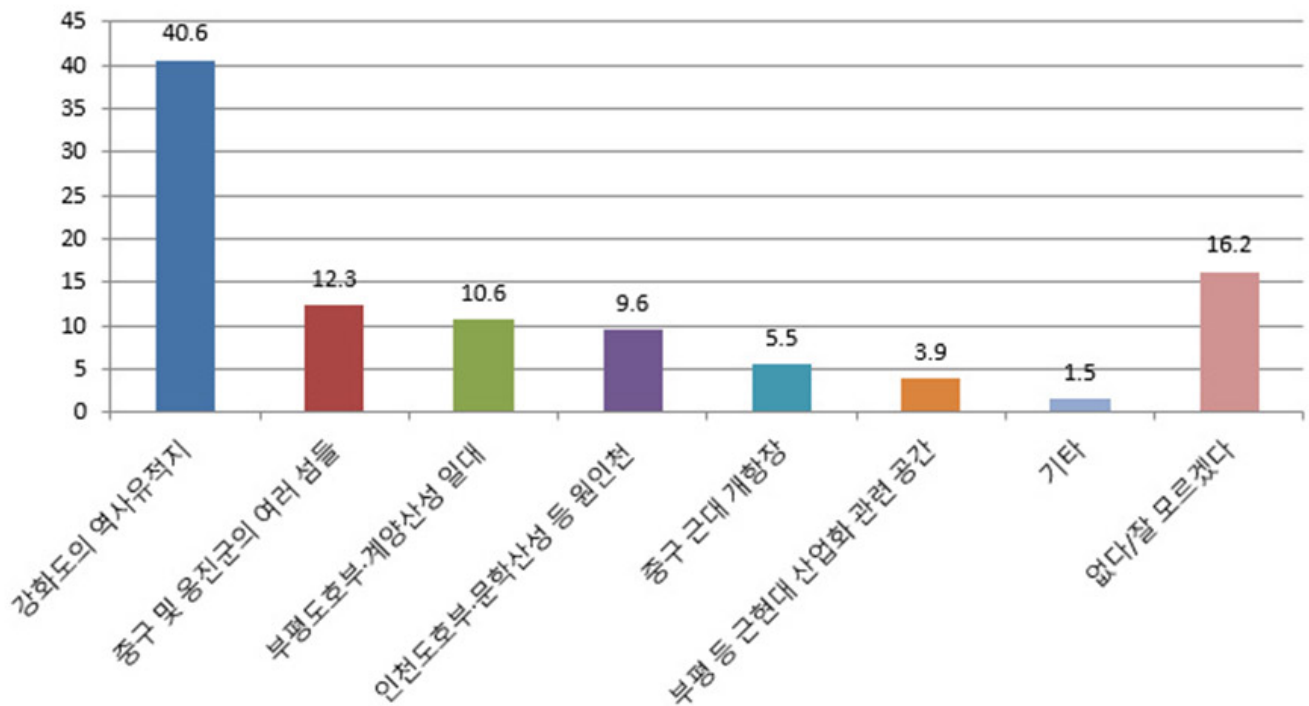
표 1. 인천의 역사문화도시로서 이미지 부합도

인천의 역사문화도시로서 이미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했다. '인천의 역사문화도시'라는 이미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했다. 조사 대상은 인천광역시 거주자 1,007명이다.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천의 역사문화도시로서 이미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했다. '인천의 역사문화도시'라는 이미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했다. 조사 대상은 인천광역시 거주자 1,007명이다.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 (5.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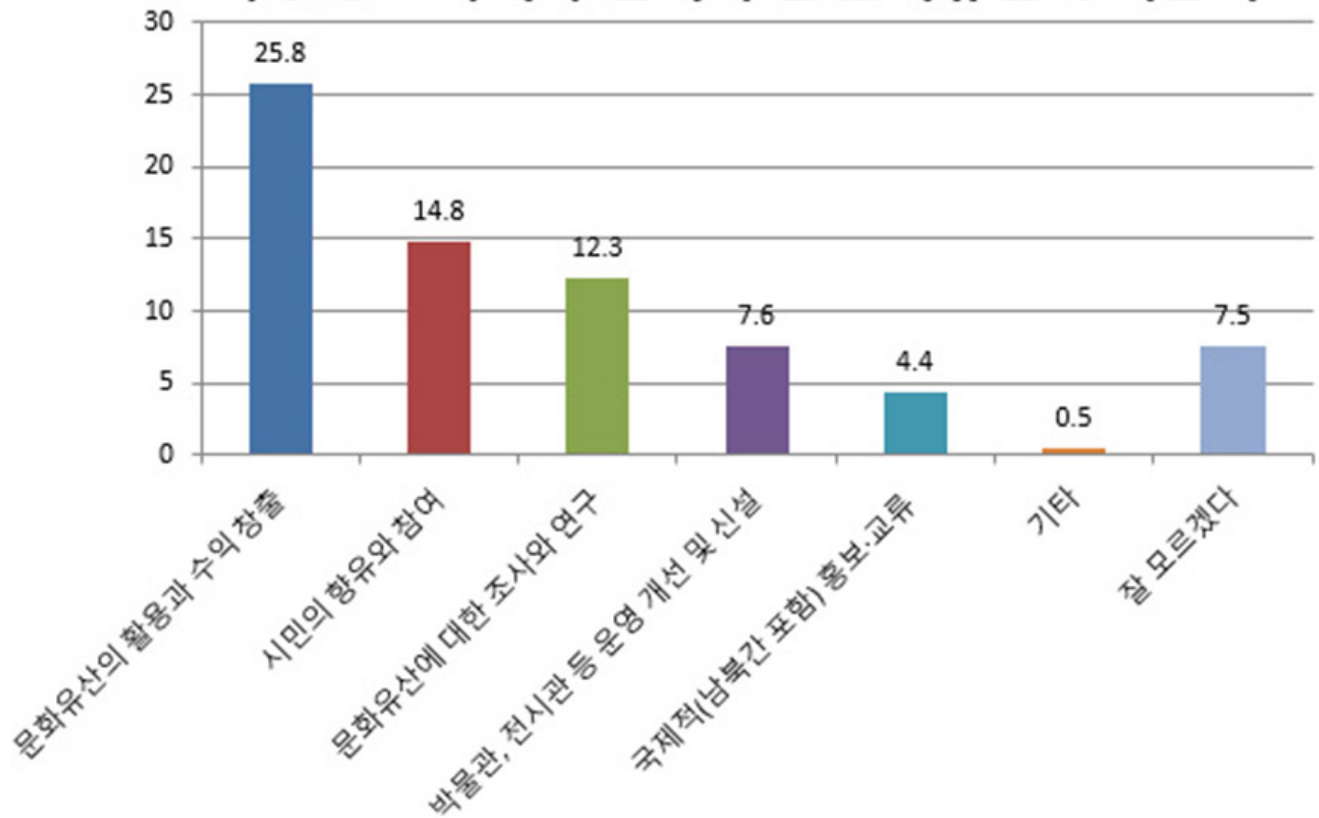
인천을 대표하는 역사유적 및 공간



○○ 2.○○○○ ○○ ○○○ ○○○○○ ○○ ○○○ ○○

○○○○ ○○○○ ○○(○○) ○○ ○ ○○ ○○ ○○○○○ ○○○○ ○ ○○○ ○○ ○○ 2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8% ○○ ○○○○○ ○○○○○ ○○○○○ ○○○○ ○ ○○○ ○ ○○○ ○○○○ ○○○ ○○○ ○○○ ○○○○.

가장 중요하게 추진해야 할 문화유산 정책분야



3.00 문화유산 정책 분야별 중요도

문화유산 정책 분야별 중요도를 조사한 결과, 가장 중요하게 추진해야 할 분야는 '문화유산의 활용과 수익 창출'로 25.8%를 차지했다. '시민의 항유와 참여'는 14.8%,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12.3%, '박물관, 전시관 등 운영 개선 및 신설'은 7.6%, '국제적(남북간 포함) 홍보·교류'는 4.4%, '기타'는 0.5%, '잘 모르겠다'는 7.5%였다.

문화유산 관련 참여·향유 기회 부족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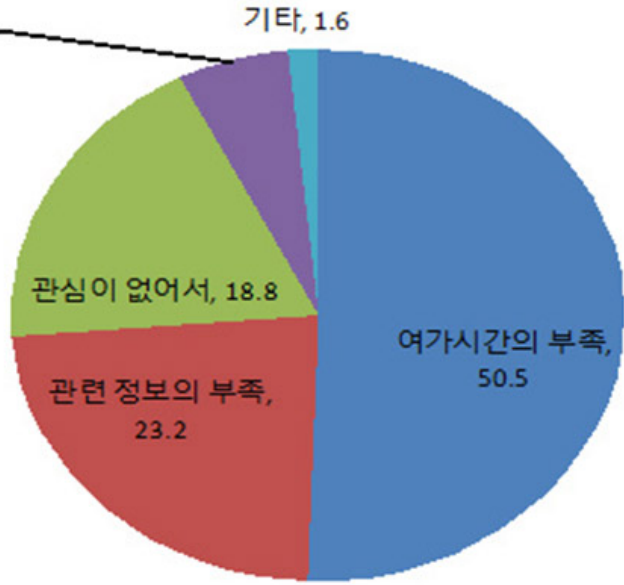


표 4. 문화유산 관련 참여·향유 기회 부족 이유

문화유산 관련 프로그램의 참여·향유 기회 부족 이유를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응답자가 '여가시간의 부족'을 꼽았다. '관련 정보의 부족'과 '관심이 없어서'도 주요 이유로 꼽혔다. '프로그램의 부족'과 '기타'는 각각 5.8%와 1.6%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은 전국 6개 시도 25개 문화유산 7개 13개 문화유산 관련 프로그램에 19개 문화유산 관련 프로그램에 1,007명(±3.2%(표준오차 95%))이 참여했다. 문화유산 관련 프로그램의 참여·향유 기회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www.ifac.or.kr'에 문화유산 관련 정보 제공을 가장 많이 꼽았다.